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 부작용 잇따라

전남도 소 33마리 폐사, 유·사산…20일까지 피해 접수

전남농업박물관·광주시립민속박물관 대보름행사 취소

전남도가 우리나라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을 마친 가운데 예방 접종 부작용이 잇따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수의사 등 182명을 동원해 소 53만3000마리, 돼지 110만 마리 등 163만3000마리에 대해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쳤다. 구제역 유입 방제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함께 소독,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서두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 폐사와 유·사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까지 전남에서 33마리의 소가 폐사하거나 유·사산했다.

전남도는 백신 접종 이후 2주 이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산지 가격의 80%를 보상해주고 있다. 부작용 피해가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에서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전남도는 지난해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유·사산이 발생한 163농가 196마리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은 가장 안전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백신 접종이 지난 2일 완료됐고,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주일간이 최대 고비이므로 소독과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열기로 한 대보름 세시풍속놀이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오는 17일 개최 예정이던 '정원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취소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도 오는 16일 열기로 한 '빛고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취소했다. 광주 남구 대표 축제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칠석마을 고싸움놀이를 재현하는 고싸움놀이축제는 다음달 30~31일로 미뤄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0일 함평군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농가 등에 입출입하는 차량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주 구제역 발생이후 고강도의 특별방역조치를 한 결과 추가 발생없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최대 14일에 달하는 구제역 잠복 기간동안 매일 소독을 할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민간전문가 공공행정 참여

서울시 이어 두번째 도입

광주시는 건축 및 도시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민간전문가를 공공행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중앙정부 공공건축 혁신 9대 과제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광주시가 특·광역시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역건축계의 추천을 받아 총괄건축가를 선정한다. 총괄건축가는 ▲건축·도시공간 정책수립 및 사업의 기획·발주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자문 ▲우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조정 및 자문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추진 부서 간 상호 협력 및 협업 추진 등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기획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광주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에게 (가칭)광주 아트폴리스 정책을 맡겨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 아트폴리스 사업은 1, 2호 사업으로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진흥센터와 구 인화학교 부지의 장애인수련시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학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등 지역 건축단체 회장단과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 건축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월 지역건축 관계자 최종 검토회의를 거쳐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디자인의 수준이 시민은 물론 외지인에게 주는 광주의 인상"이라며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건축 디자인을 지향하면서 광주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도서관 신축·개보수 137억 투입

전남도는 올해 137억 원을 들여 전남지역 도서관 신축·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축 도서관은 여수 이순신도서관·영암 학산도서관·목포 용해지구도서관 등 3곳과 순천 풍덕동 글마루도서관·함평 나산면 작은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4곳, 마을도서관 3곳 등 모두 10곳이다. 마을도서관은 오는 3월께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개보수 도서관은 목포시립도서관·광양 중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11곳, 광양 송보작은도서관·담양 월산면 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3곳 등 모두 14곳이다.

전남도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관 시간 연장, 주민 독서문화 교실 운영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다문화 자료실 설치 등에도 16억 원을 투입한다.

최병만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전남지역 특성상 아직도 문화 소외지역이 많은 만큼 작은도서관과 마을도서관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시설 규모와 소장 도서량에 따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학교도서관으로 구분된다. 공공도서관은 규모 264㎡ 이상 60석 이상이고, 작은도서관은 규모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이다. 마을도서관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에 조성한 도서관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설 연휴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 지난해의 2배

120편 1만8449명 이용

국내선은 28편 4554명

설 연휴 동안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이용객이 지난해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항공편 148편에 모두 2만30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하루 평균 85.4%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국제선은 120편으로 1만8449명이 이용했다. 하루 평균 2635명씩 국제선을 이용한 것으로 지난해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193명이 이용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120.9%)으로 늘었다.

국내선은 모두 28편을 운항해 4554명이 이용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651명으로 지난해 평균 579명보다 12.4% 증가했다.

지난해 설 연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국제선 51편 5965명, 국내선 20편 2895명이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이용객은 모두 166만명으로 국내선 124만명, 국제선 42만명이 항공편을 이용했다. 하루 평균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19.9% 증가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은 25만6000여명이 공항을 이용해 연휴 기간 중 가장 붐볐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명절과 관계없이 연휴가 있으면 해외여행을 가는 추세"라며 "이번 설 명절 연휴가 길어 국제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하세요

광주시 13일~22일 접수

광주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규모는 지난해 12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33억원이며, 노후 경유차 2100여 대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광주시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면서 그 외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과 차량 중량 등이며, 생계형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40대)는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보세요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자 모집

26일까지 9개 사업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및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2019년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

올해 공모사업은 3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5억3900만 원 규모다. 시·군을 포함한 76개 기관·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시·군 대상 지원 사업은 ▲교육 필요계층에게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움디딤돌' ▲평생교육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시·군 평생교육 DB 구축' ▲지역 현안과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마을단위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전남 배움행복마을학교 조성' 등 4개 사업이다.

기관·단체 지원 사업은 도민의 취·창업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남 행복일자리 창출 ▲인생 이모작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지원 ▲지역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남도학 프로그램' 등이다.

학습동아리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가능한 우수 동아리 육성을 위한 '배움+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다.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jnile.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